

## 감염성 폐기물 교육 자료

### 1. 감염성폐기물의 정의

- 인체조직물, 탈지면 등 의료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뜻합니다.

### 2. 감염성폐기물의 종류

- ① 조직물류 : 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체, 동물의 사체(수의사법에 의한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것), 실험동물의 사체와 인체 또는 동물의 피, 고름, 분비물. 단,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신 4월 이상의 사태는 제외
- ② 탈지면류 : 인체 또는 동물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또는 소독약이 묻은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기저귀, 생리대
- ③ 폐합성수지류 : 일회용주사기, 수액세트, 혈액백 또는 혈액투석시 사용된 폐기물
- ④ 병리계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용기,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혈액병, 폐장갑, 폐배지 또는 폐혈액
- ⑤ 손상성폐기물 : 주사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 침 또는 치과용 침
- ⑥ 혼합감염성폐기물 : 제① 내지 제⑤의 감염성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로서 다른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

### 3 . 감염성폐기물 발생기관 (2004.08.11)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그 부속 시험·연구기관  
(의학, 치과의학, 한의학, 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 4. 불법처리 사례

광주과기원 감염성폐기물 처리‘심각’

< 출처 : 대한일보 2007-08-14 >

광주과학기술원이 감염성 폐기물 등을 무단방치 하는 등 불법을 일삼고 있다.더욱이 과기원 직원들은 환경관련 법규 등을 위반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국내 최고의 석학들을 배출하고 있는 과기원이 어떻게 환경오염물인 감염성폐기물을 방치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9시께 생명과학동, 삼성환경동 등 3곳 연구실을 방문, 감염성폐기물들이 수북이 쌓여있는 현장을 목격하였다.

생명과학동 1층 조직세포연구실 등 출입구에 여기저기 놓여있는 빨간색봉투를 발견, 내용물을 확인결과 세포배양에 쓰였던 슬라이드, 주사기, 폐장갑, 깔집 등이 담겨져 좁은 복도 한켠에 방치돼 있었다.2~4층까지의 복도는 1층과 마찬가지로 감염성폐기물들이 곳곳에 방치돼 비좁은 복도를 꼭메우고 있었다.특히 건물 1층 입구 푸른색 일반쓰레기봉투에는 실험용 쥐 등의 배설물이 묻어있는 깔집이 화장지 등의 생활쓰레기와 섞여 배출되고 있었다.

이같은 행태는 과기원이 감염성폐기물 처리 개념조차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어 씁쓸했다.과기원 관계자에 따르면 폐기물은 지난 2004년부터 일부 분리처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과기원은 생활·사업장 일반·지정(감염성)폐기물 등 3종류의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로는 일반쓰레기봉투에 깔집 같은 감염성폐기물이 섞여서 반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적출물들이 포함된 일반쓰레기 등은 쓰레기장으로 규합, 재활용 등의 과정을 거쳐 청소차에 실려 매립장으로 운반된다.

둘째로는 감염성 폐기물이 지정폐기물로 둔갑 되는 등 폐기물법을 위반하고 법규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광주과기원은 실험용 동물 등 사체만을 감염성폐기물로 취급해 처리해 오고 있었다.

감염성 폐기물 관리법규에 따르면 실험용 동물의 사체는 물론 실험에 사용되는 모든 도구는 특정폐기물로 처리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기원은 사체를 뺀 폐장갑, 주사기, 슬라이드, 시험관, 커버글라스, 배양용기 등 도구일체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과기원 시설팀 관계자는 지난 10일 본기자와의 통화에서 “현행 체계가 특정폐기물 등 처리는 각 해당학과 실험연구실 교수가 처리하고 있다”며 “연구실에서 일어난 사실을 자신들은 알 수 없고,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법대로 처리했을 것”이라고 떠밀기식 변명으로 일관했다. 관계자는 또 “자신들은 폐유·폐액 등 폐수처리장 관리 운영만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광주과기원은 오랜 역사와 전통이 없고 체계적인 기반조성이 돼 있지 않아 자체가 불법인지 몰랐다”며 “이제야 관련법규에 대해 인지했으니 폐기물을 잘 관리 처리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